

|      |                   |     |            |       |
|------|-------------------|-----|------------|-------|
| 제공일자 | 2010. 2. 23(화)    | 담당자 | 오영수 선임연구위원 |       |
| 홍보담당 | 김세환 수석(3775-9051) | 연락처 | 3775-9012  | 총 2 매 |

## 제목 : 보험회사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신뢰 높여야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한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윤리경영 운영체계를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크게 낮아진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자율규제 차원으로 끌어올려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원수보험회사인 41개 보험회사(전수조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운영체계,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도 및 윤리경영 수행의 효과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보험산업의 경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윤리규범을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윤리규범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주로 임직원 및 전속모집조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회사가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 제도로써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은 윤리규범 준수서약제도(92.7%),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제도(87.8%),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8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리경영의 인식도나 수행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보험회사는 윤리경영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윤리경영의 이해도 등 윤리경영의 원칙론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측면, 즉 그 실천 여부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윤리경영의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보험회사는 윤리경영의 수행을 통해 기업이미지와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협력사와의 관계 활성화'나 '매출액 및 수익률 증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차원과 개별 보험회사 차원으로 구분하여 윤리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험산업은 불완전판매로 낮아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산업 차원에서 기업윤리가 어느 정도로 확립되어 있는지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윤리평가보고서를 정례화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윤리경영이 보험산업 내에 실질적으로 체화되도록 최고경영자와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및 추진의지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천하고 임직원 간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윤리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윤리경영은 관련회사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므로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윤리경영 실태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보다 확충하고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간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 시스템의 국제표준화는 국제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스스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도 제안하였다.

※ 첨부 :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조사 <주요 내용>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